

# 광주시의원들 구청장 도전 '러시'... 현직 긴장

동구 손재홍, 남구 나중천, 광산 송경중

서구 이춘문·김보현·김영남 저울질

북구 조호권·진선기·문상필 거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광주시의원들이 구청장 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구청장들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도전을 저울질하거나 자진타면 거론되고 있는 의원은 9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의원

총 26명 가운데 교육의원(4명)과 비례(2명)를 제외한 지역구 의원이 19명인 점을 감안하면 42%가 구청장 도전장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구와 북구 지역 출신의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이 강렬할 것으로 보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구청장 출마를 결심했거나 도전이 확실시되는 의원은 우선 재선의 조호권(북구5) 의장을 비롯한 3선의 나중천(남구3) 부의장과 손재홍(동구2)의원, 재선의 진선기(북구1)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선 의원 중에서는 이춘문(서구1)·김보현(서구2)·김영남(서구3)·문상필(북구3)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거나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송경중(광산3) 부의장과 지역구와 시의회 안팎에서 구청장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북구와 서구의 경우는 각각 3명의 시의원이 구청장 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가장 치열한 경쟁 선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조호권 의장만 북구 을이고, 진선기·문상필 의원은 북구 갑이어서 지역구간 대결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김영남 의원만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고, 이춘문·김보현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이들은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 민생 탐방 및 민원인 면담 등을 통해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다 향후 '안철수 신당' 등의 정치적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중 일부는 구청장 도전을 포기하고 시의원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다 향후 '안철수 신당' 등의 정치적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중 일부는 구청장 도전을 포기하고 시의원 출마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와 달리 초선 시의원들의 구청장 도전 의지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며 "이는 대선 패배 이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과 젊은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방정가

### 윤봉근 시의원, 교육감 선거 출마 표명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봉근 광주시의원이 19일 내년 광주 시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 말께 민주통합당을 탈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당적이 없어야 한다.

윤 의원은 "장래 교육감 체



제에서 실력 광주시의원이 혼들리고 있다"며 "대학입시가 자 격시험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교육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 야간 자율학습의 부활도 필요하며 전교조 출신인 장휘구 현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홍인화 시의원, 여성지방의원과 유럽 연수

광주시의회 홍인화(민주·북구 4)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6명의 여성 지방의원들과 함께 프랑스와 벨기에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번 연수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지방의원 교육기관인 프랑스 시메프(CIDEFF)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홍 위원장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프랑스의 여성 지방의원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여성 지방의원을 대표해 연설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의회 "박당선인 인사탕평 지켜야"

광주시의회는 19일 박근혜 당선인의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와 관련해 "호남차별과 출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과 인사탕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지역과 학벌이 중심이 된 인사는 국경

운영의 편협함을 초래한다"며 "향후 차관급과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정책과 예산서도 호남의 배제와 무시가 되풀이되는 안 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모습과 의지를 확인시켜달라"고 주문했다.

## "국격 높였다" 긍정속 "호남소외" 비판

### 이명박 정부 5년 마감... 평가 '극과 극'

이명박 정부 5년이 대다수의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5년은 한국의 국격을 높인 시기라는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불통과 측근 비리, 호남 소외 등 면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비판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 연설'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돼가고 있다"면서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저는 광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평가를 역사에 맡기고자 한 것처럼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49차례에 걸

쳐 84개국을 방문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22바퀴를 돈 것이다. 자유 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지평을 넓혔으며 2차례의 경제위기를 맞아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4대강 사업이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4년간 총 22조원을 들이는 '대역사'를 했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받았고,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 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돼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내각동 대통령 사저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특히 '불통 정부'라는 악명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오점이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쇄고파동이나,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대표적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화법에서 나타나듯 "나를 따르라"는 개발 시대의 일방 독주식 리더십에 여론은 등을 돌렸다.

지난 5년 동안 영남에 대한 우대 속에 호남에 대한 소외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임기 마지막 청와대 비서관 중 단 1명의 광주·전남 인사가 없을 정도로 호남 출신은 인사 소외에 몰려야 했고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영남에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49차례에 걸

대해 치하하는 의미로 받겠다"면서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이 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지극히 비슷한 이유로 수훈을 미뤄오다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셀프 훈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하는 게 상례"라며 "새 정부 출범 뒤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49차례에 걸

## '셀프 훈장' 논란 피하러...

### 이대통령, 박당선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영예 수여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 결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예정이

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받아왔으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공작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19일 울산현대호텔에서 열린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운태 시장, 광역시장협의회장 선출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노력

강운태 광주시장이 19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제4대 광역시장협의회회장을 선출됐다.

강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확대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970년대 농어촌정비특별법과 같이 도시재생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대한민국 통합과 공존의 큰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확충'을 국정 아젠다로 채택할 것,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가에서 개헌논의가 대두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현재의 2할,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리는 등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주시가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가 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등 8건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광주 등 6개 광역시장에 참여하는 '광역시장협의회'는 2008년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33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직업으로서의 정치 떠납니다"

###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9일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와 야권의 대선 패배를



겪으며 자신의 정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끝을 간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이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앞)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가 은 공인중개사

####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재건내면)